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서 드리는 아홉 번째 “영상택배” 안내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한국에는 왜 차이나타운이 없을까



지난 주 보내드린 연변대학교 김광희 교수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아시아 공동체”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 전해드리는 영상 강좌는 우리연구원 운영위원이기도 한 전북대 사학과 윤상원 교수의 “한국에는 왜 차이나타운이 없을까 -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주제로 한 온라인 문화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 70호

세계 시민임을 자처하며 지구 곳곳을 누비시는 김천식 회원께서 지난 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연재되었던 발로 쓰는 미국 풍경 연재를 마치고 다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천식 박사는 기독교사 뿐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2018년 이후 다시 이어지는 “발로 쓰는 유럽 풍경”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느강은 파리를 동서로 나눈다(1)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사진 아래쪽 나무에 가려진 부분이 세느강이고 뒤편 높은 언덕이 몽마르트 언덕이다

한강은 서울을 남북으로 나누고 세느강은 파리를 동서로 나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무슨 대단한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도심지를 흐르는 강이 강북과 강남으로 또는 강동과 강서로 나뉘지는 지리적인 구분과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적인 차이를 말하고자 한다.

우선 동쪽지역부터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곳이 몽마르트 언덕을 들 수 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몽마르트 언덕은 하얀 대리석 성당 '사크레 퀴르'가 유명하지만, 이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고 일반적인 시민문화의 관점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몽마르트를 볼 수 있다. 과거에 이곳은 무명화가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고흐, 르누아르, 모딜리아니, 피카소, 달리 등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업공간이며 생활터전이었다.



현재의 몽마르트 광장

그들은 후일에 유명하기 전까지 이곳 몽마르트 언덕의 몽마르트 광장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곳은 지금도 미래의 고흐, 피카소를 꿈꾸는 무명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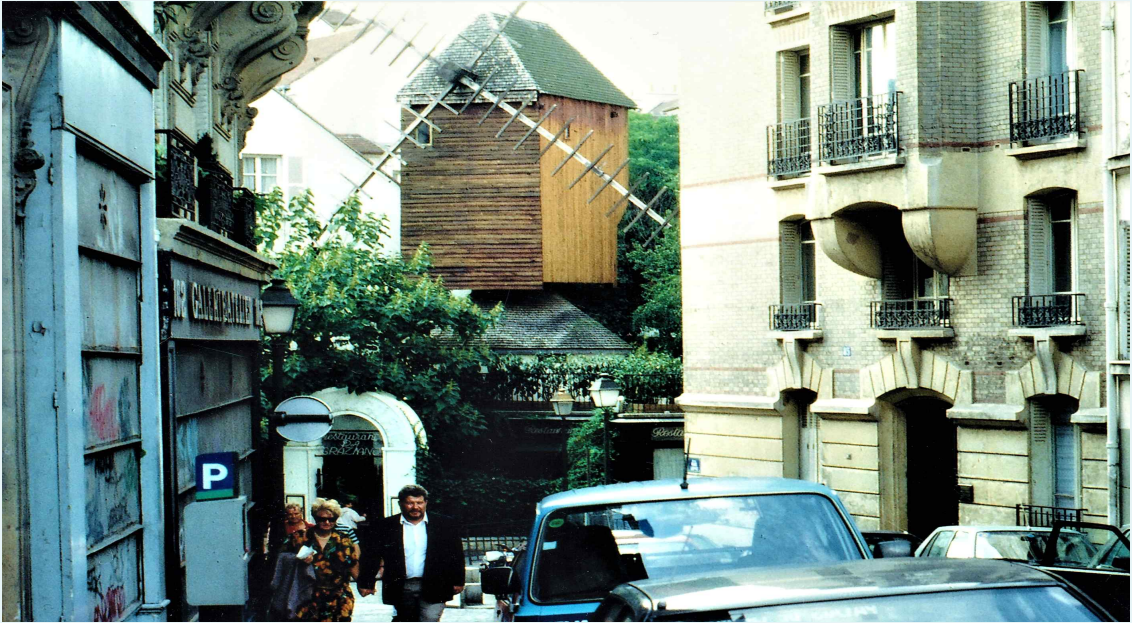
그 옛날 이곳 몽마르트 광장에서 활동했던 화가 지망생들 중 고흐나 모딜리아니 등은 작품이 팔리지 않아 저녁이 되면 이젤을 접고 빈털터리로 언덕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무명화가들과 가는 곳이 있었으니, 언덕 아래의 싸구려 선술집이었다. 허름한 술집에서 그들은 예술을 논하기도 했겠지만, 술잔을 부디 치며 회포를 풀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영향으로 언덕 위와 내려오는 골목 등 인근 지역은 지금도 카페, 살롱, 술집 등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향락지역이라기 보다는 화가들의 예술과 애환이 묻어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흥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지역으로 인정(?) 받고 있는 지역이다.

몽마르트 언덕은 유명세에 걸맞게 예술역사유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다. 풍차가 있는 경치 속에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물랭 드 라 갈레트'가 하나이다. 이곳은 1622년에 세워졌는데, 원래 밀을 빻는 제분소였다. 이 제분소는 1814년 전쟁 중에 주인이 참변을 당했고 그 후 사교장이 되었는데, 르노아르, 빈센트 반 고흐 등 많은 화가들이 이곳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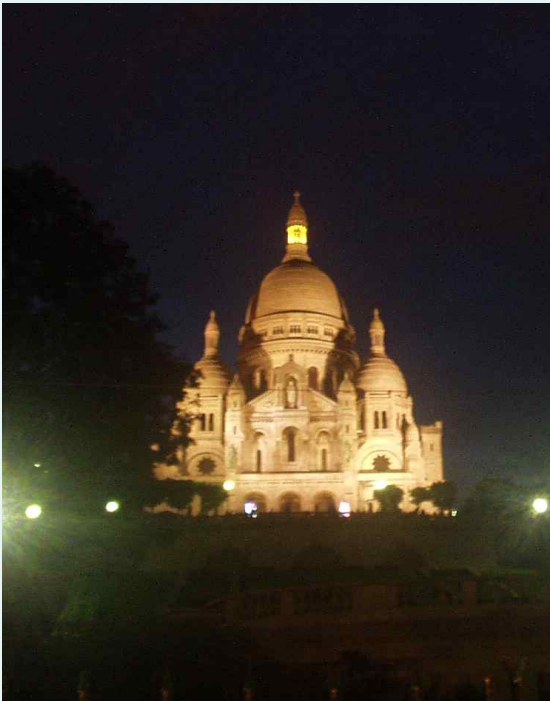


르누아르가 그린 '물랭 드 라 갈레트'의 사교 광경



몽마르트 광장으로 가는 골목에 있는 '물랭 드 라 갈레트'

야간에 보이는 풍경은 낮에 보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몽마르트는 성당으로 인한 성스러운 분위기와 유희적인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유희적이라고 하지만 그리 속된 분위기는 아니다. 카페 실외 의자에 앉아 맥주 한잔 하면서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세 번째 이야기 “목각탱에 얽힌 사연”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승사 목각탱 | 보물 제575호. 너무도 아름답기에 진작 영주 부석사와 갈등을 일으켰고 나중의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문서마저 보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대승사는 윤필潤筆거사와 고려 시대의 나옹화상, 함허선사를 이어 근대 선맥의 중흥조였던 경허선사를 비롯해, 성철·청담·서암·금오·고암·향곡·월산 등 기라성 같은 선승들이 거쳐 간 유서 깊은 사찰이다.

대웅전 안에는 화려하면서도 장중하기 그지없는 예의 목각탱이 소중하게 모셔졌다. 이 목각탱은 조선 후기의 탁월하고도 섬세한 재주를 지닌 어느 손길이 빚어낸 후불탱이다. 높이가 4m에 너비 3m인데, 11개의 판목으로 이루어졌다. 본래 영주 부석사浮石寺에 봉안되어 있다가, 1869년(고종6) 무렵에 대승사로 옮겨 왔다. 관계 문서와 함께 보물 제575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부석사는 거의 폐찰이 되다시피 쇠락한 형편이라서, 무량수전 안에 모셔졌던 이 목각탱을 대승사로 넘기게 되었다. 그런데 뒷날 사세寺勢를 다소 회복한 부석사에서는 곧바로 목각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때 대승사 측에서는 반환 불가의 입장을 내세우며 부석사 측과 갈등을 일으켰다가, 마침내 1876년에 부석사의 조사전祖師殿 수리 비용을 대승사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1869년과 1876년 두 차례에 걸쳐 문서가 작성되었으니, 목각탱과 관련한 두 사찰 간의 합의가 주된 내용이다.

이 목각탱은 목재에다가 부조浮彫와 투조透彫의 기법을 혼용해 아미타불을 새겼지만, 비단에 채색하는 일반적인 아미타후불탱화와 구도나 형태의 측면에서 거의 흡사하다. 중앙에 키 모양의 광배와 연꽃 대좌를 부조로 새긴 다음, 여기에 별도로 깎아 만든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모셨다.

좌우에는 협시불을 다섯 단으로 나누어 배치했는데, 좌우 3위씩 4열로 대칭의 형식이다. 사천왕과 관음·세지·문수·보현·제장애除障礙·금강장金剛藏·지장·미륵의 팔대보살, 이천상二天像, 일궁日宮과 월궁月宮의 이천자二天子, 6대 제자상 등이 작은 명패를 앞에 달고 자리를 잡았다. 이들의 자세는 입상과 좌상에, 무릎을 꿇고 앉은 공양상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지녔다.

목각탱은 예천의 용문사와 상주의 남장사 등 우리나라 일곱 군데 절에만 유례가 남았다고 한다. 이들은 대체로 경상북도 북부에 해당하는데, 지리산 자락에 터를 연 실상사의 부속 암자인 미륵암에도 목각탱이 따로 전해 온다. 대승사의 목각탱은 현존하는 것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데다가, 솜씨 또한 가장 뛰어나다고 일컬어진다.

이 목각탱은 일반 탱화가 주는 느낌과 전혀 다르다. 누군가의 정밀하면서도 세련된 솜씨를 빌렸기에, 조각 작품이 본래부터 주는 입체감에 생동감이 더해져 한층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니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환희심과 신심을 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대작大作이요, 걸작이다. 이 목각탱을 보기 전에는 일찍이 부석사와 대승사사이에 왜 그런 갈등이 일었는지 쉽사리 이해가 되질 않는다. 따라서 꼭 한번 찾아볼 만하다.

대웅전의 동쪽에 있는 선당禪堂안에는 전체 높이 90cm, 무릎 너비 57.5cm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15세기에 조성한 것인데, 보물 제991호로 지정되었다. 복장腹藏에서「관음보살원문觀音菩薩願文」이 발견되었으니, 1516년(중종11)에 새로 도금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어깨를 덮었다. 원만하고 정제된 느낌의 상호相好에, 화려한 구슬이 전신을 장식하였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 만큼, 대웅전 앞마당에서 연등 준비가 한창이다. 주렁주렁 매달린 연등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바쁘다. 스님 몇 분도 나와서 함께 일을 거든다. 구경하는 마음이 편치 않아, 얼른 대승사에서 몸을 빼내 윤필암으로 향한다.

대승사 경내 왼쪽의 숲에는 흥미롭게도 '우부도牛浮屠'가 있는데, 오늘은 이곳에 들르질 못했다. 이 부도는 대승사를 중창할 때, 소리없이 짐을 실어 나르다가 불사가 끝나자마자 몸을 벗고 저승으로 떠난 소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화려한 장식 속에 원만한 느낌의 상호는 절제된 표정으로 깊은 명상에 들었다. 그 앞을 오가는 나그네들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든다.

다음 주는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네 번째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사불바위"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